

가정 예배 모범

- 2020_07_19_장기중앙교회

매일성경 7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함께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임마누엘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늘 의지하도록 도와주세요.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임마누엘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이사야 7:10-25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 1) 이사야 선지자는 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하스 왕은 이사야의 요청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사야가 앗수르를 의지하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말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아하스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징조가 없어도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미 자기가 원하는 바를 정해 놓고 교만하게 제멋대로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따르며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족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기도로 묻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2)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어떤 징조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앗수르를 의지하기로 선택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거라고 예언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이라 불리는 아이를 통해 현재 유다 백성이 당한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동시에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십니다. 비록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백성을 고난의 길로 몰고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족이 여러문제들과 갈등 앞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